

# KIA 김규성 “다 보여주고 경쟁서 살아남겠다”



풀타임 소화하며 경험·주루 자신감 확보  
아시아쿼터·외국인 경쟁 속 새 시즌 각오

‘경험’이라는 무기를 더 한 KIA 타이거즈 김규성이 ‘경쟁’의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KIA 김규성에게 2025시즌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값진 시즌이었다. 개막전부터 최종전까지 단 한 번도 엔트리에서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킨 김 규성은 11월 진행된 오카나와 마무리캠프에서는 캠프 주장이라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아수진의 출부상 속 건강하게 풀타임을 뛰면서 경험을 채운 그는 중고참으로서의 책임감까지 배웠다.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김규성은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매년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팀에서 건강함이라 강점을 가진 그는 1루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수비수다. 여기에 흠크스틸, 그라운드 훌런 등 인

상적인 장면도 연출하기도 하는 등 수비와 주루에서 계산이 서는 확실한 내야 자원이 됐다.

활용도가 높은 자원으로 우선 흡하는 김규성이지만

만만치 않은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주전 유격수 박찬호가 FA를 통해 두산으로 이적 했지만 내야는 더 치열한 격전지가 됐다.

박찬호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KIA는 처음 도입되는 아시아쿼터 카드를 내야수로 채웠다. 호주 국가대표 출신 제리드 데일이 아시아쿼터로 내야에 합류했고, 새로운 외국인 타자인 베네수엘라 출신의 ‘빅리거’ 해럴드 카스트로도 내야와 모두 소화 가능한 자원이다.

김규성은 “외국인 선수가 내야를 볼 수 있고, 아시아쿼터도 내야수이다 보니까 올해는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새 시즌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김규성은 “확실히 아프지 않은 게 중요하다. 안아파야 기회가 찾아오고 뭐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시즌 입단 후 가장 많은 경기를 뛰면서 수비에 대한 자신감은 커졌다. 결정적인 순간 밟고 짜릿한 순간들을 연출하면서 주루도 김규성의 힘이 됐다. 올 시즌 김규성이 기대하는 주루 대결도

생겼다.

앞서 KIA의 ‘뛰는 야구’를 이끌었던 조재영 코치가 롯데로 이적하면서 올 시즌 적으로 대결하게 됐다.

김규성은 “조재영 코치님 오시고 나서 주루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호흡을 맞추면서 코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흠크스틸도 나오고 그라운드 훌런도 기록하면서 임팩트 있는 주루가 나왔던 것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코치님이 다른 팀으로 가셨지만 배웠던 것을 가지고 고영민 코치님이랑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다”며 “롯데와의 경기 기대된다. 코치님이 저를 보면서 ‘아라?’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준비하겠다”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스승과의 대결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수비와 주루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타격이다.

김규성은 아수진의 출부상으로 ‘함평 타이거즈’가 가동됐던 지난해 6월 39타석에 나와 훌런과 2루타 하나를 더해 13안타를 때리면서 0.342의 타율을 기록했었다. 6월 신바람의 주역이었던 김규성이지만 7·8월에는 타격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김규성은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접점 후반 가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인플레이 타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타이밍도 자꾸 늦어졌다. 분명 똑같이 잡은 것 같은데 자꾸 타이밍이 뒤로 갔다”고 언급했다.

김규성은 “‘인플레이 타구’를 키워드로 삼은 그는 시즌이 끝난 뒤 진행된 울산 가을리그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타격의 정교함을 더하겠다는 각오다.



2025시즌 첫 풀타임 시즌을 보낸 내야수 김규성이 주루·강점을 바탕으로 타격에서도 입지를 넓힐 예정이다. (KIA 타이거즈 제공)

하고, 투수가 던지는 구종을 노리면서 쳐보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리그를 했었다”며 “체력에 신경 쓰면서 꾸준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다문화 베이스볼 캠프

14일까지 선착순 25명 모집

KIA 타이거즈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2026 KIA 타이거즈 유스 베이스볼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KIA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광주, 전남, 전북 지역 다문화가족 중고등학생 25명을 초청해 주말 야구체험 캠프를 연다. 지난 2024년 첫선을 보인 이번 캠프는 오는 31일부터 2주에 걸쳐 4회 진행된다.

참가자는 챔피언스 필드와 젤린저스 필드의 선수단 훈련 시설에서 야구 규칙 설명, 기초 체력 훈련, 기본기 훈련, 미니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야구를 배우게 된다.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참가자에게 유니폼 세트와 야구용품이 지급되며, 젤린저스 필드 선수단 식당의 점심 식사도 제공된다.

참가자와 가족들은 올 시즌 홈경기 단체 관람 기회도 받는다. 특히 캠프 MVP로 선정된 참가자는 홈경기 시구자로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를 밟게 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 오후 5시까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선착순 25명을 대상으로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MLB 올스타’ 브레그먼 컵스와 2555억원 계약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상급 3루수 알렉스 브레그먼(31)이 시카고 컵스 유니폼을 입는다.

AP통신 등 미국 매체는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자유계약선수(FA) 브레그먼이 컵스와 계약기간 5년, 총액 1억7500만달러(약 2555억원)에 계약 합의했다고 전했다.

컵스 구단은 신체검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트레이드 거부권이 포함된 계약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브레그먼은 2018년과 2019년, 2025년 올스타에 선정된 스타 플레이어이다.

2019년 실버 슬러거, 2024년 골드 글러브를 받는 등 공격과 수비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뛴 2025시즌 대퇴부 부상에도 11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2, 18홈런, 62타점을 기록하며 제 몫을 했다.

브레그먼은 2024시즌 종료 후 보스턴과 3년 1억2000만달러에 FA 계약했으나 움트 아웃(계약 파기 권한)을 행사한 뒤 FA 시장에 나왔다.

MLB닷컴은 “계약이 확정되면 브레그먼은 컵스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총액에 도장 찍은 선수가 된다”며 “연평균 수입은 컵스 구단 역사상 가장 높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해가 바뀌어도… 쎄영~

안세영, 왕조이 꺾고 말레이시아오픈 3연패… 새해 첫 승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이 새해 첫 대회부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세계 최강’의 위용을 과시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결승에서 2위 왕조이(중국)를 56분 만에 2-0(21-15 24-22)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이 대회 3연패 금지탑을 쌓았다.

특히 지난해 8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던 왕조이를 다시 한번 제압하며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17승 4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갔다.

경기 초반 안세영은 잠시 흔들렸다. 1개임 초반 5점을 연속으로 내주며 1-6으로 뒤처졌으나 끈질기게 따라붙어 10-11로 인터벌을 맞았다.

전열을 가다듬은 안세영은 인터벌 이후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7점을 연속으로 몰아치며 단숨에 전세를 뒤집고, 첫 게임을 따냈다.

2개임에서는 절치부심한 왕조이가 거세게 반격했다.

안세영은 8-7로 앞서던 상황에서 내리 7점을 실점하며 주도권을 내줬다.

그러나 쉽게 물러설 안세영이 아니었다. 안세영은 13-19로 패색이 질린 상황에서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순식간에 6점을 몰아쳐 19-19 동점을 만들었다.

승부는 드스로 이어졌다. 20-20에서 시작해 세 차례나 동점을 반복되는 헐투 끝에 23-22로 역전에 성공한 안세영은 특유의 날카로운 대각 크로스 샷으로 상대 코트를 짜르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안세영은 지난해 최대 최다승 디이기록(11승),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 그리고 역대 최고 누적 상금액(100만3175달러)을 달성하며 배드민턴의 새 역사 를 썼다.

2026년 첫 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하며 기분 좋게 출발한 안세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13일 개막하는 인도 오픈에 출격해 다시 정상을 노린다.

/연합뉴스



안세영이 1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오픈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왕조이를 꺾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